

# 白給을

## 다시 생각한다

야마자키농업연구소 역음  
최연희 외 옮김

녹색평론사

自給再考 —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の次は何か  
by 山崎農業研究所

Copyright©2008 by Yamazaki Nogyo kenkyujo

Korean translation copyright©2010 Greenreview Publishing.

Originally published in Japan by Yamazaki Nogyo kenkyujo in 2008.

머리말

## 왜 지금 '자급'이 문제인가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며 일본의 식량자급률(39퍼센트, 2006년)을 말하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세계적인 곡물가격 앙등과 중국만두사건 등이 있고, 텔레비전과 신문·잡지에서는 에너지, 금융과 더불어 식량의 세계적 위기라고들 한다. 한편, 최근에는 식량과 농업과 환경의 밀접한 관계, 생활의 기본·지역의 기반으로서의 농업, 나아가서는 세계화가 각국의 농업과 환경 그리고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는 일도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급'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우리의 문제의식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매스컴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식량위기'론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위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둘째,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지탱하는 것은 '농사'라는 생활이고, 그러므로 '자급률'을 논하기 전에 '자급' 자체의 의미를 넓고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셋째, '자급'을 다시 생각하고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각지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니시카와 준(西川潤, 와세다(早稻田)대학 명예교수) 씨는 현재의 식량가격 양등과 세계적인 식량경제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일본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세키 히로노(關曠野, 사상사가) 씨는 논의해야 할 것은 자급이 아니라 세계화된 무역이라 보며, 지금의 식량위기는 단순한 식량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엘리트의 세계무역 논리와 민중의 지역적 자급의 논리가 날카롭게 부딪치고 있다고 말한다. 요시다 타로(吉田太郎, 나가노(長野)현 농업대학) 씨는 인류사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탈(脫)석유시대의 자급에서 필요한 것은 자기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나 농민의 지식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이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의욕, 계획성, 창조력)이라고 말한다.

나카지마 기이치(中島紀, 이바라키(茨城)대학 농학부) 씨는 근대라는 시대를 일단락 짓기 위한 자급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최근 10년간의 자급을 둘러싼 정책을 정리한 뒤, 식량과 농업

과 자연을 잇는 유기농업론의 전개 가능성을 설명한다. 우네 유타카(宇根豊, 농업과 자연 연구소) 씨는 자급이 식량의 자급, 특히 국가의 식량자급으로 특화된 데서 현재의 혼란이 비롯되었고, 자급은 근대화에 대한 대항 개념, 원리주의로서 파악해야 한다면서 그 다양성에 대해 언급한다. 유키 도미오(結城登美雄, 민속연구가) 씨는 문제가 되는 것은 식량자급률이 아니라 먹을거리를 지탱해나갈 인력이라면서, 자급하는 가족, 농산물직판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자급적 농가, 자급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 언급한다.

구리타 가즈노리(栗田和則, 야마가타(山形)현 가네야마(金山)초, 농림가) 씨는 산촌생활의 즐거움과 넉넉한 속내를 언급하면서 소비의 자급론, 경제의 자급론이 아니라 창조의 자급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오미 나오키(塩見直紀, 半農半〇 연구소) 씨는 지속가능한 소규모 농사를 기반으로 숙달된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사회적으로 살리는 삶의 방식이, 농적(農的)·자급적 감성이 미래를 열 것이라고 전망한다. 야마모토 가즈코(山本和子, 농업마케팅연구소) 씨는 먹을거리의 소비를 '필요한 것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고려하면서 먹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식량자급률 제고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고이즈미 고로(小泉浩郎, 야마자키농업연구소) 씨는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즉 그 지역에서 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움직임

이 바로 '자급'의 구체적 실천이라고 보고, '맛있다', '고맙다'는 말로 이루어지는 사람 간의 신뢰[和]와 건강한 땅을 기초로 하는 자연의 순환[輪]이야말로 글로벌스탠더드라고 말한다.

야마자키농업연구소는 2000년 3월에 《긴급제언: 식량주권 - 삶의 안전과 안심을 위하여》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로부터 8년, 식량뿐만 아니라 삶을 둘러싼 상황은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점점더 흥미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위기'의 본질을 '자급'의 관점에서 되묻고 '자급'을 육성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는 노력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번 책이 식량과 농업과 환경, 그리고 지역에 대해 차분하고 진득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단초가 된다면 다행이겠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원고를 써주신 집필진 여러분, 그리고 출판 기회를 주신 농산어촌문화협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년 11월

야마자키농업연구소 편집위원회 대표  
다구치 히로시(田口均)

## 목차

|                              |     |
|------------------------------|-----|
| 머리말 왜 지금 ‘자급’이 문제인가 다구치 히로시  | 5   |
| 세계의 ‘식량위기’ 니시카와 준            | 11  |
| 무역의 논리, 자급의 논리 세키 히로노        | 37  |
| 탈(脫)석유시대의 식량자급을 생각한다 요시다 타로  | 56  |
| 농업을 사회의 기초로 되돌리고 싶다 나카지마 기이치 | 75  |
| ‘자급’은 원리주의로 있기를 바란다 우네 유타카   | 99  |
| 자급하는 가족·농가·마을은 묻는다 유키 도미오    | 121 |
| ‘자창자급’하는 산촌에서 구리타 가즈노리       | 138 |
| 라이프스타일로서의 자급 시오미 나오키         | 156 |
| 식생활이 바뀌면 자급도 바뀐다 야마모토 가즈코    | 175 |
| ‘순환’의 재생과 ‘신뢰’의 회복 고이즈미 고로   | 190 |

## 에너지·금융·식량 대란의 시대에 위기감을 느끼며 自給을 다시 생각한다

우리는 '자급'의 관점에서 현재의 '위기'의 본질을 되묻고, '자급'을 육성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는 노력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우리의 문제의식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매스컴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식량위기'론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위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삶으로서의 '농사'가 지탱하고 있고, 그러므로 '자급률'을 논하기 전에 '자급' 자체의 의미를 넓고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셋째, '자급'을 다시 생각하고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각지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 책을 펴내며



ISBN 978-89-90274-59-5  
ISBN 978-89-90274-57-1(세트)



